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썩이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들다. '썩다'의 사동사.

문헌의 첫 기록
18세기

수록 용례
8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썩이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들다. ‘썩다’의 사동사.

썩이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썩이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석이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썩이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석이- 문헌 수록 표기	–	–	–	●→	–	–
써기- 문헌 수록 표기	–	–	–	–	●→	●→
썩이-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석이다

18세기

- 썩이다
  19세기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석이-, 써기-, 썩이-

썩이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썩이다’의 옛말인 ‘석이다’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석이-’는 썩다를 뜻하는 동사 ‘석-’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19세기부터 제1음절 초성 ‘ㅅ’이 된소리화로 된 ‘썩이-’, ‘써기-’가 나타난다.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함에 따라 ‘썩이-’로 표기하게 되었다.

문헌 속의 썩이다

전체 용례 8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8세기 석이-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석이-

출처 1775 역어유해 보:53ㄴ

용례 01

문헌 용례

耐心 ᄆᆞᅀᆞᆷ 석이다.

현대어 풀이

마음 썩이다.

출처 1778 방언유석 4:27ㄱ

용례 02

문헌 용례

耐心 ᄆᆞᅀᆞᆷ 석이다.

현대어 풀이

마음 썩이다.

19세기 써기-, 썩이-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써기-, 썩이-

출처 1898 독립신문 5월 5일 1면

용례 03

문헌 용례

일이 ᄆᆞᅀᆞᆷ으로 더브러 억이여 외국에 분찬ᄒᆞ야 ᄆᆞᅀᆞᆷ을 썩이고 피를 토ᄒᆞ야 풍샹을 지ᄂᆡ여 다ᄒᆞᆫ 지 십유여 년이라.

현대어 풀이

일이 마음과 같지 않아 외국에 달아나 숨어 마음을 썩이고 피를 토하여 풍상을 지내어 다한 지 십여 년이다.

출처 1898 제국신문 8월 22일 3면

용례 04

문헌 용례

챨하리 죄명을 얼거셔라도 죵신을 옥즁에셔 썩이ᄂᆞᆫ 거슨 오히려 나흘지라.

현대어 풀이

차라리 죄명을 얽어서라도 종신을 옥중에서 썩이는 것이 오히려 나을것이다.

출처 1899 매일신문 5월 3일 1면

용례 05

문헌 용례

일이 ᄆᆞᄋᆞᆷ과 ᄀᆞᆺ지 못ᄒᆞ미 몸이 외국에 도망ᄒᆞ야 간을 써기고 피를 토ᄒᆞ며 십여 년 풍상을 무한히 격근지라.

현대어 풀이

일이 마음과 같지 못하여 몸이 외국에 도망하여 간을 썩이고 피를 토하며 십여 년 풍상을 무한히 겪었다.

20세기 써기-, 썩이-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써기-, 썩이-

출처 1907 귀의성 상:76

용례 06

문헌 용례

에그 마님게셔 허구한 세월예 저럿케 속을 써기시고 엇더케 견ᄃᆡ시ᄂᆞ ᄒᆞ면셔 고기을 살작 숙이더니.

현대어 풀이

에그, 마님께서 허구한 세월에 저렇게 속을 썩이시고 어떻게 견디시나 하면서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출처 1908 현미경 99

용례 07

문헌 용례

이런 근심으로 누구 ᄃᆡᄒᆞ야 말은 못 ᄒᆞ고 벙어리 닝가슴 알틋이 혼ᄌᆞ 쇽만 썩이니 그리 곱든 얼골이 누럿케 써셔 병식이 ᄂᆡ발니고.

현대어 풀이

이런 근심으로 누구를 대하여 말은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혼자 속만 썩이니 그리 곱던 얼굴이 누렇게 떠서 병색이 내발리고.

출처 1913 금의쟁성 3

용례 08

문헌 용례

음식이라도 남 쥬자니 악갑고 나 먹자니 시려셔 푹푹 썩이고.

현대어 풀이

음식이라도 남 주자니 아깝고 나 먹자니 싫어서 푹푹 썩이고.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썩이다 관련 낱말

썩-

썩이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썩이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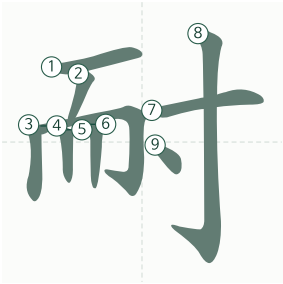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耐

뜻·음 견딜 내

총 9획 · 부수 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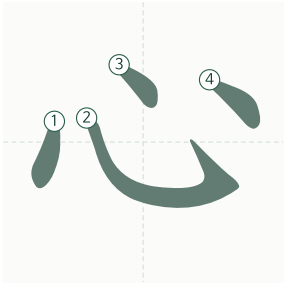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耐/

心

뜻·음 마음 심

총 4획 · 부수 心





hanja.wordrow.kr/한자/心/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